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

: 2001~2010년 10년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Difference of Motivation of Move to Swedish Senior Cohousing by Longitudinal Analysis

: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of 2001 and 2010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 수 최 정 신**

Major in Consumer & Housing Studies, Faculty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ofessor : Choi, Jung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 in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in Sweden during 10 years between the year of 2001 and 2010 by a longitudinal study.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for the study. 313 data were collected from 12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which were established by residents-initiated process. It includes 8 of Senior gårdén cohousings in 2001 and 4 of +40 cohousings in 2010 nationwide in Swede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between 2001 and 2010. Comparing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during 10 years, respondents of 2010 focus more on social merits than practical merits of cohousing as they move to cohousing communities. They stress more to the reasons as good contacts with neighbors, mutual supports, sharing common activities and getting rid of loneliness rather than burden of housing and garden management, and universal-designed house.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has been changed during 10 years in Sweden.

▲주요어(Key Words) : 코하우징(cohousing),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이주동기(motivation of move), 스웨덴(Sweden), 종단적 분석(longitudinal analysi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코하우징(cohousing)은 현대사회에서 심화되어가는 개인주의적 경향, 노인가구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

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기혼 여성의 시장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가사노동과 일상생활시간의 부족, 소외감, 아동양육의 어려움에 대응한 대비책으로 1970대 이후에 서구에서 개발된 생활공동체이다. 코하우징은 가족해체가 우리보다 앞서서 일어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스칸디나비아와 유럽 각국, 그리고 북미 등지에 다수의 공동체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코하우징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공동활동 참여를 통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회적 지원과 생활경비를 절약하여 실질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 이 논문은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최정신 (E-mail : jjschoi@catholic.ac.kr)

코하우징의 특성 상, 주민의 구성은 대단히 중요하며 일단 입주한 주민들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코하우징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코하우징에서 주민들의 잦은 이사로 인하여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코하우징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하우징을 분류하는 기준은 소유권, 위치, 주택유형, 입주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민의 입주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가족이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연령통합형 코하우징(age-integrated cohousing)”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55세 또는 40세 이상의 부부 또는 독신자만 입주할 수 있는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입주연령은 각국의 노인주택법의 기준에 따라 주택보조금의 지원 연령 규정과 관련이 있으며, 또는 “aging-in-place”의 이념으로 고령자들이 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가능한 한 오래도록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복지정책과 맞물려 규정된다. 최근 2000년 대 이후에 스웨덴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의 입주 연령을 과거 55세 이상에서부터 4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이를 “+40 코하우징”이라고 지칭한다. +40 코하우징의 발달배경은 기존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이 55세 이후에 입주하게 되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주민들이 동시에 고령화되고 따라서 코하우징도 함께 고령화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활력이 줄어들고 자칫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쉬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이다. +40 코하우징은 사회에서 아직 직장생활을 하는 40~50대의 장년층을 주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사노동시간의 절약을 지원하고 외부사회와의 연결을 가져오는 대신, 60대 이상의 주민들은 은퇴 후에 여유로운 시간과 축적된 사회경험을 통하여 더 많은 시간과 인적자원을 공동활동에 투자함으로써 코하우징 공동체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두 집단 간의 상호보완에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학계에서 스칸디나비아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고 왜 사람들이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가에 대한 주제는 코하우징 밖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은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이주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Choi, 2003; 2004; 2005; Choi & Cho, 2006)와 스웨덴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과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령적 관점에서 본 코하우징 유형별 이주동기의 차이를 규명해 본 연구(Choi & Strid, 2011; Choi, 2012)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의 이주동기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에서 노후세대들이 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지 그 동기를 밝혀보고 그 이주동기가 과거 10년간에 걸쳐서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과 기대의 차이가 10년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미래에는 또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코하우징 주민들의 이주동기의 변화는 미래에 코하우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개인적 이유에 의한 이주동기는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주택관리의 이유에 의한 이주동기는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안전의 이유에 의한 이주동기는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환경적 이유에 의한 이주동기는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이념적 이유에 의한 이주동기는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6> 시계열적으로 차이 있는 이주동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스웨덴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으로, 민영주택인 시니어고든(Senior gården)에서 설립한 노인용 코하우징 8개 단지, 그리고 스웨덴 코하우징 공식홈페이지인 콜렉티브후스누(Kollektivhus Nu/ Cohousing Now in English)에 등록된 +40 코하우징 4개 단지로, 총 12개 단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이주동기를 10년간의 차이를 두고 파악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 집단을 10년간 추적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일 집단을 10년간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2001년도의 표본은 시니어고든이고 2010년도의 표본은 +40 코하우징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집단은 아니지만 노인용 코하우징의 설립방식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집단을 선별하였으므로 이주동기의 10년간 차이를 비교하기에 중요한 오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니어고든(2001)과 +40 코하우징(2010)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주민들이 코하우징의 설립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주한 “주민주도형 코하우징”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지닌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였다. 시니어고든은 스웨덴의 우수한 민영주택회사인 JM에서 코하우징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하는 55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한 민영주택이다. 시니어고든은 회사와 미래 주민들이 설립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의견을 모아 단지 디자인과 공동생활 방식, 운영지침 등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주택은 개인소유이다. 한편, +40 코하우징은 시니어고든과 마찬가지로 초기단계부터 자발적인 주민참여 방식의 설립과정을 거치며 민영회사의 역할을 지방정부에서 맡아서 하고, 주택의 소유는 조합소유 또는 공영임대이다.

스웨덴에는 본 연구의 대상 이외에도 공영임대주택회사인 SABO에서 공급하는 노인용 코하우징도 다수 설립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문헌과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우선 공영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차후에 코하우징의 생활방식으로 생활하고자 동의하는 익명의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SABO에서 공급하는 코하우

징은 초기설립단계부터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설립되는 시니어고든이나 +40 코하우징과는 성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택의 소유권에 있어서는 시니어고든이 개인소유이고 +40 코하우징이 조합소유 또는 공영임대라는 차이는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주거복지가 발달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을 자산적 가치로 보기보다는 생활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개인소유, 조합소유, 공영임대 등을 경제적 이유보다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추세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팔목할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조사법인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2001년과 2010년도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위하여 빈도, 평균비교,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를 10년간의 차이를 두고 시계열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과 2010년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이 개인적 문항 6개, 주

Table 1.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numbers)

Personal information (6)	Housing information (1)	Living period (1)	Motivation of move in (19)
Gender (1)			Personal reason (3)
Age (1)			Housing management reason (5)
Living situation (1)	Dwelling size (1)	Living period (1)	Security reason (6)
Health condition (1)			Environmental reason (4)
Education(1)			Ideological reason (1)
Profession(1)*			

* Profession is a current profession or main profession before retirement

Table 2. Object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Year	Cohousing communities	Distributed questionnaires	Collected questionnaires	Responded rate (%)
2001	Senior gården	242	186	76.9
2010	+40 cohousing	165	127	77.0
	Total	407	313	77.0

* Senior gården (8 communities): Österlen Seniorbo, Solosen, Ringblomman, Eriksberg, Höjdpunkten, Kaplanen, Solhöjden, Tunadalen

* +40 cohousing (4 communities): Färdknappen, Majbacken, Sockenstugan, Tersen

1) Choi & Paulsson(2004)은 코하우징의 설립주체에 따른 주민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코하우징을 설립방식에 따라 “주민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코하우징의 설립초기단계에서부터 미래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하여 코하우징의 디자인, 규정설정, 운영 등에 참여하는 경우를 “주민 주도형”으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서류와 관련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코하우징을 먼저 설

립하고 추후에 익명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지방정부 주도형”이라고 칭하였다. 덴마크의 경우는 대부분 “주민 주도형”이고, 스웨덴의 경우는 “주민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의 두 가지 유형이 함께 사용된다.

2) SABO(Sveriges Allmännyttiga Bostadsföretag)는 스톡홀름 공영임대주택회사연합이다.

택에 대한 문항 1개, 거주기간 1개, 이주동기에 대한 문항 19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배부는 2001년도 표본은 시니어고든 회사에서 주민대표들을 통하여 주민들 각자에게 배부해주었으며, 2010년도 표본은 연구자가 직접 주민대표들과 이메일과 편지를 통하여 설문응답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총 배부 수는 407부(시니어고든 242부, +40 코하우징 165부)였고 이중 313부(77.0%)가 회수되었는데 회수율은 두 집단에서 비슷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Table 2> 참조).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용 코하우징의 개념과 발달과정

노인용 코하우징이란 건강한 노후세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상호간의 공동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치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주택의 일종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해나가고 직장으로부터는 은퇴하였으나 아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층의 노후세대, 즉 빈 둥우리 세대(empty-nest generation)에게 권장할만한 주거대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Housing Study Group, 2000).

스칸디나비아에서 처음 시작된 코하우징의 발달 역사를 보면, 처음 1940년대에 유료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서비스모델(service model)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 차츰 주민들이 공동부업을 이용하여 스스로 식사준비, 주거관리, 가사노동을 공동 분담하는 자치관리모델(self-work model)의 현대적인 코하우징으로 발달되었다.

노인용 코하우징도 자치관리모델의 코하우징과 같은 개념이지만 다만 노인주택의 임대지원금 규정과 맞물려 주민의 연령이 55세 또는 40세 이상이라는 점과, 노인용 코하우징도 한편으로는 노인주택의 일종이므로 건물 디자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채용된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노인용 코하우징은 자기관리가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은 물론, 약간의 보조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최대한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개선자금의 보조, 가사보조원을 이용한 가사원조서비스, 지역간호사를 통한 재택의료서비스,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급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택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관리모델의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노인이더라도 필요시에는 언제나 재택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합을 구성하여 노인용 코하우징을

설립하거나 공영임대의 코하우징을 선택할 경우에도 주택용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비교적 젊고 건강한 노후세대들, 즉 제3의 연령대(the third age) 사이에서는 시설에 입주하는 대신 스스로 자치관리모델의 코하우징을 구성하여 이주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Choi, 2003; Choi & Paulsson 2004).

2. 코하우징의 이주동기와 선행연구

코하우징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에서는 사람들이 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SBI, 1987; Ambrose, 1993; Pedersen, 1999; Hansen et al., 2000). 이 연구들에서는 주민들이 은퇴,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과 같은 개인적 이유,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거주하던 주택과 정원관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택관리의 이유,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좋은 주거지를 찾는 환경적 이유, 그리고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 이주한다는 이념적 이유의 이주동기를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도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코하우징으로 이주한다는 주택관리의 이유가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주동기로 나타났다(Ambrose, 1993).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동기를 조사한 연구(Choi, 2003; 2004; Choi & Cho, 2006)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은퇴와 같은 개인적 이유보다는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택관리의 이유, 코하우징의 위치와 같은 환경적 이유, 공동활동 참여, 이웃과의 상호협조와 같은 안전상의 이유, 그리고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과 같은 이념적 이유가 중요한 이주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동기가 강할수록 코하우징에서의 생활만족도도 높으며(Choi & Cho, 2006; Cho et al, 2012)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국가(스웨덴 또는 덴마크)에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 & Cho, 2006).

한편, 스웨덴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과 +40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이주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Choi & Strid, 2011; Choi, 2012)에서는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코하우징 유형별로 이주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코하우징 주민들은 은퇴, 작은 집,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 이웃과의 상호협조, 편리한 위치, 문화활동에의 접근 용이성, 코하우징의 이념을 찾아서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반면,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의 주민들은 큰 집,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을 찾

아서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코하우징 이더라도 코하우징의 유형에 따라 이주동기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주동기가 주민들의 연령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주거욕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주동기가 10년간의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이주동기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약 65%를 차지하나 연도별로는 2001년도의 표본보다(61.8%)이 2010년도 표본(70.9%)에서 그 비율이 더 높다. 전체적인 연령은 70대 이상이 5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60대(32.6%)이며 50대 이하(8.6%)는 매우 적다. 그러나 2001년도 표본에서 70대 이상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

Content		2001 (n=186)	2010 (n=127)	total (n=313)
Gender	male	71(38.2)	37(29.1)	108(34.5)
	female	115(61.8)	90(70.9)	205(65.5)
Age	~59	11(5.9)	16(12.6)	27(8.6)
	60~69	39(21.0)	63(49.6)	102(32.6)
	70~	136(73.1)	48(37.8)	184(58.8)
Living situation	single	88(47.3)	86(67.7)	174(55.6)
	cohabitant	98(52.7)	41(32.3)	139(44.4)
Dwelling size	1~2r+k	50(26.9)	96(75.6)	146(46.6)
	3r+k	111(59.7)	27(21.3)	138(44.1)
	4~5r+k	25(13.4)	4(3.1)	29(9.3)
Living period (years)	~3	72(38.7)	46(36.2)	118(37.7)
	3~7	86(46.2)	41(32.3)	127(40.6)
	7~	28(15.1)	40(31.5)	68(21.7)
Health condition	bad	4(2.2)	19(15.0)	23(7.3)
	not all right	43(23.1)	44(34.6)	87(27.8)
	all right	139(74.7)	64(50.4)	203(64.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1(38.2)	6(4.7)	77(24.6)
	high school	70(37.6)	31(24.4)	101(32.3)
	college/university	45(24.2)	90(70.9)	135(43.1)
Profession	home worker	13(7.0)	1(0.8)	14(4.5)
	worker without long professional education	25(13.4)	9(7.1)	34(10.9)
	worker with long professional education	15(8.1)	6(4.7)	21(6.7)
	civil servant/official without long professional education	44(23.7)	9(7.1)	53(16.9)
	civil servant/official with long professional education	42(22.6)	37(29.1)	79(25.2)
	academic	25(13.4)	52(40.9)	77(24.6)
	leader/owner of a business	12(6.5)	6(4.7)	18(5.8)
	others	10(5.4)	7(5.5)	17(5.4)

(73.1%)이 가장 많았던 데 비하여 2010년도 표본에서는 60대 이상(49.6%)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70대 이상(37.8%)과의 차이는 비교적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10년 후 코하우징 주민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2000년대 이후에 스웨덴에 새로이 등장한 +40 코하우징의 보급에 따라 55세 이하의 연령층도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구유형은 2001년도에 독신가구(47.3%)와 부부가구(52.7%)의 차이가 비교적 적었던 데 비하여 2010년도에는 독신가구가 전체의 67.7%를 차지하여 부부가구(32.3%)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코하우징이 목표로 하는 주민층의 하나가 독신가구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현상이고, 이 현상이 10년 사이에 더욱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주택규모는 2001년도에 3R+K(59.7%)이 가장 많았으나 2010년도에는 1~2R+K(75.6%)가 가장 많아 주택규모가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 중 독신가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001년도에 74.7%에서 2010년도에는 50.4%로 감소하였다. 10년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평균연령이 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사대상의 특성 중, 특기할만한 변화는 교육수준과 직업에서 나타난다. 교육수준과 현재 또는 과거의 주된 직업은 두 표본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2001년도 표본에서 초등학교졸, 중등학교졸, 대학졸업자의 비율이 각각 30% 내외로 거의 비슷하였던 데 비하여 2010년도 표본에서는 대학졸업자가 70.9%를 차지하여 고학력자가 급격하게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0년간 사회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된 영향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평균 교육수준과 비교하면 코하우징 주민 중에 고학력자가 매우 많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은 직

업과도 관련이 깊어서 2001년도 표본에서는 단순노무직이 비교적 많았던 데 비하여 2010년도에는 전문직과 교육자의 비율이 70.0%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하우징의 주민이 일반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적 교육수준이 더 높고 교육자 집단이 더 많다는 특성이 10년 간 더욱 강화된 현상으로 보인다.

2.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는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가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이유(3개), 주거관리의 이유(5개), 안전의 이유(6개), 환경적 이유(4개), 이념적 이유(1개)의 5개 범주, 총 19개 항목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할 후, 평균점을 기준으로 10년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Table 4>~<Table 8> 참조). 4점 척도는, 1점 “전혀 아니다”로 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항목별 시계열적 차이는 평균점수가 10년간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만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1) 개인적 이유

개인적 이유는 은퇴, 이혼, 배우자의 사망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평균이 4점 만점에 1.38로 나타나 5개 범주 중 가장 낮은 이주동기로 작용한다. 이경향은 2001년도 표본(1.43)보다 2010년도 표본(1.31)에서 더욱 낮다(<Table 4> 참조).

세부항목별 평균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3개 항목 모두 2점미만 (1.14~1.62)으로 나타나고 10년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은퇴자가 되어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의 차이는 2001년도 표본(1.70)보다 2010년도 표본(1.50)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두 집단 간에 통계

Table 4. Personal Reason

		became a pensioner	divorced	husband/wife died	total mean
2001 (n=186)	mean	1.70	1.03	1.56	1.43
	SD	1.057	0.273	1.057	
2010 (n=127)	mean	1.50	1.29	1.13	1.31
	SD	0.813	0.747	0.549	
total (n=313)	mean	1.62	1.14	1.38	1.38
	SD	0.987	0.535	0.910	
t value		3.387 N.S. (.067)	18.623***	17.780***	

*** $p < .001$ N.S.= Not significant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혼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2001년도 표본(1.03)보다 2010년도 표본(1.29)에서 약간 증가한 반면,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는 2001년도 표본(1.56)보다 2010년도 표본(1.13)에서 다소 감소하였고 이 차이들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이유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고 이러한 경향은 10년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주거관리의 이유

주거관리의 이유는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 해소”, “더 작은 집을 찾아서”, “더 큰 집을 찾아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건물을 찾아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을 찾아서”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Table 5> 참조).

전체적으로 주거관리 이유 때문에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는 평균 1.84로서 낮으며 2001년도 표본(2.06)보다 2010년도 표본(1.52)에서 더욱 낮아져 10년간 그 중요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세부항목별 평균을 검토하면, “주택과 정원관리부담 해소(2.24)”, “더 작은 집을 찾아서(2.06)”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에서 살기 위하여(2.06)”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는 2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더 큰 집을 찾아서(1.09)”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건물에서 살기 위하여(1.73)” 이주한 경우는 2점미만의 평균을 나타내어 중요한 이주동기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의 이유 때문에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는 2001년도 표본에서는 5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평균 2점 이상이었으나 10년 후에는 5개 항목 모두 2점 미만으로 이주동기 중에서 그 중요도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표본과 2010년도 표본 사이에 연도별 차이를 보

면 5개 항목 모두 2001년도 표본보다 2010년도 표본에서 평균점이 낮아져 주택관리의 이유가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동기로서의 중요도가 감소되었음을 나타내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 항목 모두 $p < .0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표본과 2010년도 표본 사이에 1점 이상의 평균 차이가 난 세부항목은 2개로서 10년간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2.70 → 1.58)는 크게 감소하였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기 편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주택에서 살기 위하여(2.42 → 1.54) 이주한 경우도 다른 3개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결과를 해석하기에 확증적인 자료는 없으나 아마도 지난 10년간 스웨덴 사회 전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으로 주택과 건축물의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이에 대한 중요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아닐까 사료된다.

(3) 안전의 이유

안전을 찾아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이유는 “안전감을 느끼기 위하여”, “이웃과 좋은 접촉을 하며 살기 위하여”, “이웃과 상호협조하기 위하여”, “공동활동 참여를 위하여”, “외롭지 않으려고”, “코하우징 단지 내에 친지가 있어서”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Table 6> 참조). 안전의 이유는 전체 평균 2.33으로 비교적 중요한 이주동기로 부각되고 10년간 거의 1점 정도 (1.97 → 2.84) 평균점이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코하우징 단지 내에 친지가 있어서 이주하였다는 1개 항목(1.55)만을 제외하고는 5개 항목 모두 2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어 안전성 때문에 주민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Table 5. Housing Management Reason

		escape from worries about house and garden	get a smaller house	get a larger house	live in a building which is adapted to elderly/ disabled persons	live in a house which is adapted to elderly/ disabled persons	total mean
2001 (n=186)	mean	2.70	2.20	1.20	1.87	2.42	2.06
	SD	1.216	1.162	0.378	1.138	1.220	
2010 (n=127)	mean	1.58	1.87	1.07	1.54	1.54	1.52
	SD	0.971	1.079	0.313	0.889	0.880	
total (n=313)	mean	2.24	2.06	1.09	1.73	2.06	1.84
	SD	1.247	1.139	0.352	1.055	1.178	
t value		73.810***	6.558**	0.422N.S.	7.542**	49.759***	

** $p < .01$, *** $p < .001$ N.S.= Not significant

입증한다.

세부항목별로 연도별 차이를 보면, 안전감을 느끼기 위하여 이주한 경우는 2001년도 표본과 2010년도 표본에서 10년간 별다른 차이가 없고(2.49 → 2.47)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나머지 5개 항목 중 특히 “이웃과의 좋은 접촉을 하며 살기 위하여(2.30 → 3.48)”, “이웃과 상호협조하며 살기 위하여(1.87 → 2.94)”, “이웃과 공동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2.14 → 3.30)”, “외롭지 않으려고(1.77 → 2.87)”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는 모두 2001년도 표본보다 2010년도 표본에서 1점 이상 더 높은 평균점을 나타내고, “코하우징 단지 내에 친지가 있어서(1.26 → 1.96)” 이주한 경우도 평균 1점 미만이기는 하지만 10년 전에 비하여 그 중요도가 비교적 증가한다.

2001년도 표본과 2010년도 표본의 집단 간 차이는 안전감을 느끼기 위하여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만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 5개 항목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는 10년 전에 비하여 최근에 주거환경에서 안전감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안전감을 찾아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즉, 노인용 코하우징이 노후세대들에게 안전감을 느끼게 하는 주거환경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10년 전에 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환경적 이유

환경적 이유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시내에서 좋은 위치에 있어서”, “문화 활동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연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좋아서”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평균은 2.51로 비교적 높다(<Table 7> 참조). 전체적으로는 2001년도 표본(2.65)보다 2010년도 표본(2.30)에서 평균점이 약간 낮아진 차이는 있으나 특기할만한 정도

Table 6. Security Reason

		feel security	not to be alone	good contact with others	mutual supports	take part in common activities	knew other inhabitants in the unit	total mean
2001 (n=186)	mean	2.49	1.77	2.30	1.87	2.14	1.26	1.97
	SD	1.191	1.004	1.131	0.972	1.096	0.674	
2010 (n=127)	mean	2.47	2.87	3.48	2.94	3.30	1.96	2.84
	SD	1.147	1.049	0.711	1.002	0.876	1.101	
total (n=313)	mean	2.48	2.22	2.78	2.31	2.61	1.55	2.33
	SD	1.171	1.154	1.141	1.116	1.161	0.936	
t value		0.15 N.S.	86.046***	109.631***	89.776***	98.909***	48.159***	

*** $p < .001$ N.S.= Not significant

Table 7. Environmental Reason

		be very well situated in the town	come closer to cultural events/activities	come closer to the nature	be well planned and beautiful	total mean
2001 (n=186)	mean	3.30	2.06	2.27	2.98	2.65
	SD	1.020	1.053	1.201	1.127	
2010 (n=127)	mean	2.65	2.28	1.93	2.34	2.30
	SD	0.988	1.074	1.033	1.002	
total (n=313)	mean	3.03	2.15	2.13	2.72	2.51
	SD	1.056	1.065	1.147	1.122	
t value		31.405***	2.983 N.S.(0.085)	6.963**	27.043***	

** $p < .01$, *** $p < .001$ N.S.= Not significant

는 아니다. 세부항목에서 보면 그 차이는 모두 평균점 1점미만으로 환경적 이유는 주민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 데 시계열적으로 차이 없이 꾸준히 중요한 동기로 간주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용 코하우징이 시내에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주한 경우가 2001년도 표본에서 평균 3.30점으로 매우 높았던 데 비하여 2010년도 표본에서는 2.6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 이와 함께 자연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2.27 → 1.93), 그리고 디자인이 좋아서(2.98 → 2.34)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도 다소 감소한다. 반면에 문화 활동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2.06 → 2.28) 이주한 경우는 다소 증가한다.

2001년도 표본과 2010년도 표본 집단 간의 항목별 차이를 보면 문화 활동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나머지 3개 항목은 모두 $P < .01$,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환경적 이유는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동기로서 그 중요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문화 활동에의 접근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에서는 오히려 중요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 1980년대 사회복지법 개정 이후로 노인들이 최대한 자기 집에서 오래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aging-in-place의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인주택을 시내에서 보다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 건설하여 노인들이 재택보호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최근에는 노인주택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충족된 데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물리적인 주거환경에 비하여 정신적 요구, 즉 문화 활동에의 접근 요구는 최근에 더욱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5) 이념적 이유

이념적 이유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의 한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Table 8> 참조). 평균 3.36점으로 전체 이주동기 중 가장 높고 10년간 차이도 적지만 특히, 2001년도 표본(3.03)에서 보다 2010년도 표본(3.44)에서 평균점이 더 높아져 그 중요도가 더욱 강하게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차이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이 이주동기로서 코하우징의 이념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Choi, 2003; 2004; Choi & Cho, 2006; Choi & Strid, 2011; Choi, 2012)에서도 계속하여 입증된 결과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인다. 코하우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활동 참여와 상호협조를 통하여 고독감의 해소, 간존능력의 보존,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사회적 이점과 동시에, 공동취사와 식사, 식품이나 공구 등 생활용품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생활비를 절약하고 가사노동시간을 경감시킨다는 경제적 이점도 가진다. 이러한 코하우징의 기본 이념을 미리 이해하고 입주하여 자발적인 공동활동 참여와 이웃과의 교류를 찬성하는 사람만이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이 일단 코하우징에 입주한 이후에는 잦은 이사가 없이 오래동안 거주해야만 코하우징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코하우징의 초기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코하우징이 공영임대주택이고 누구나 희망하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공영임대주택의 입주규정 때문에 시내의 교통요지에 위치한 코하우징의 경우에는 코하우징의 이념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입주한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활동 참여에 무관심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음으로써 코하우징 단지의 운영상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차후에는 코하우

Table 8. Ideological Reason

		like the idea of senior cohousing	total mean
2001 (n=186)	mean	3.30	3.03
	SD	1.043	
2010 (n=127)	mean	3.44	3.44
	SD	0.931	
total (n=313)	mean	3.36	3.36
	SD	1.000	
t value		1.479 N.S.	

N.S.= Not significant

징의 주민대표들이 지방정부 당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코하우징 주민대표 위원회에서 미리 입주 희망자를 면접하고 선발할 수 있는 과정을 입주 전에 거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과정이 일반화되어 코하우징의 기본 생활이념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코하우징으로 입주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아직도 법적인 효과는 없다(덴마크의 Hammers Parken Cohousing의 Hanne Carlsen, 스웨덴 코하우징 협회 회장 Dick Urban Vestbro와의 자문에 의함).

그러므로 개인적 입장이나 코하우징 공동체의 입장에서 모두, 코하우징의 이념에 찬성하고 그 이념이 좋아서 코하우징으로 입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주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동기 5개 범주의 전체적인 중요도를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주민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할 경우, 이념적 이유

(3.36)를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이 환경적 이유(2.51) → 안전의 이유(2.33) → 주거관리의 이유(1.84)의 순이며, 개인적 이유(1.38)는 그 중요도가 가장 낮다. 즉,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은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은퇴, 이혼, 배우자 사망 등과 같은 개인적 이유는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주동기의 중요도를 시계열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해보면(<Figure 2> 참조), 개인적 이유(1.43→1.37)는 차이 없이 가장 낮은 데 비하여 안전의 이유(1.97 → 2.84)와 이념적 이유(3.30 → 3.44)는 2001년도 표본보다 2010년도 표본에서 그 중요도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주거관리의 이유(2.06 → 1.52)와 환경적 이유(2.65 → 2.30)는 그 중요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이주동기에서 안전의 이유는 10년간 평균점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항목으로 나타나 현대사회에서 이웃과의 소통이나 정서적 지원이 한층 요구되는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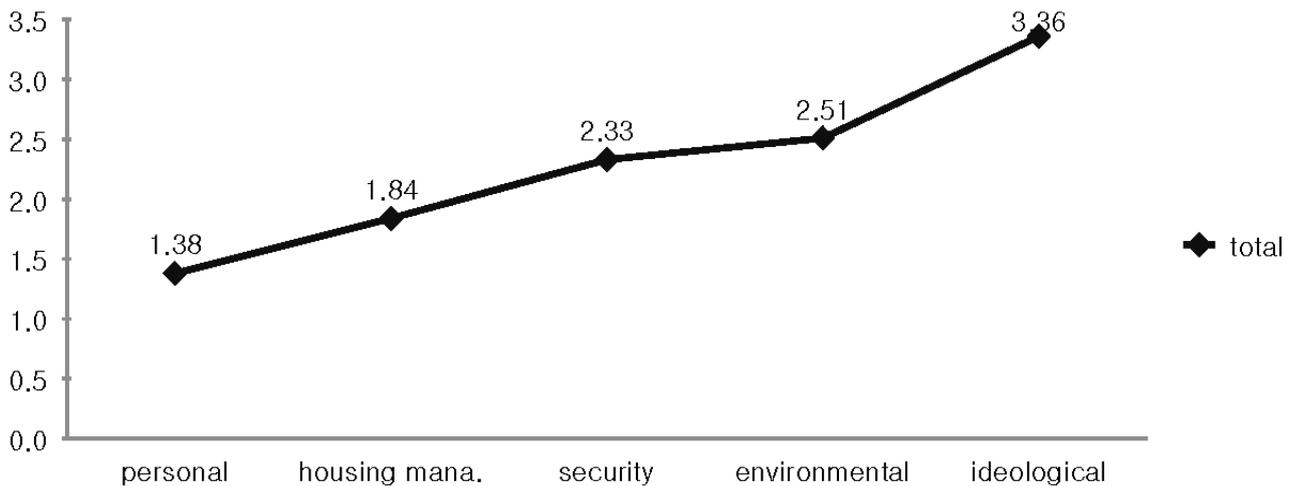


Figure 1. Importance of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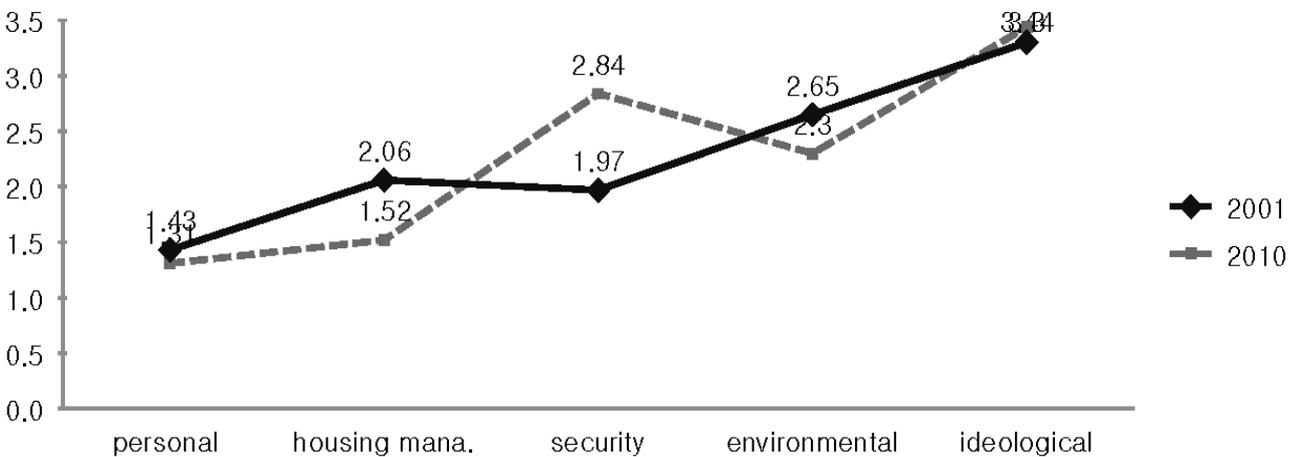


Figure 2. Importance of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Longitudinal dif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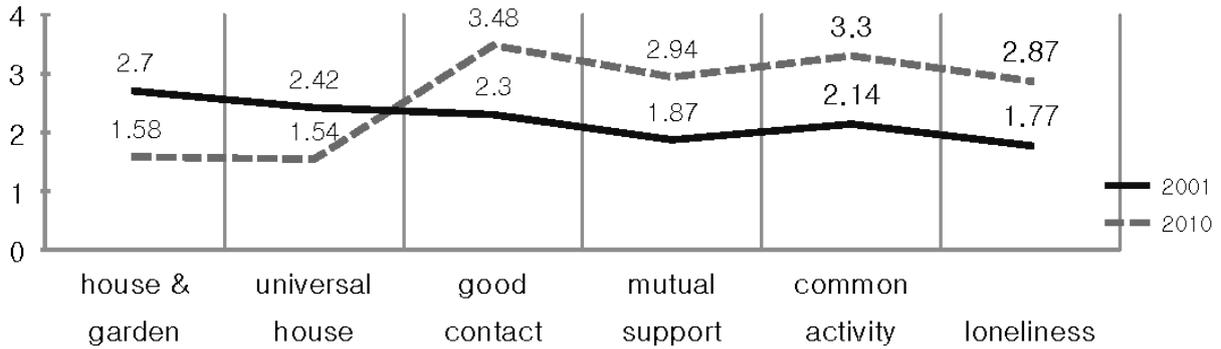


Figure 3. Different Motivations of Move to Senior Cohousing by Longitudinal Analysis

3. 시계열적으로 차이 있는 이주동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동기 19개 세부항목 중 10년간 평균 1점 이상의 차이를 보여 시계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을 검토한 결과(<Figure 3> 참조),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 해소”,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 “좋은 이웃관계”, “주민 간 상호협조”, “공동활동 참여”, “고독감 해소”의 6개 항목이 파악되었다. 이 중,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 해소(2.70 → 1.58),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을 찾아서(2.42 → 1.54)의 2개 항목의 이주동기는 2001년도 표본보다 2010년도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감소한 반면, 좋은 이웃관계(2.30 → 3.48), 주민 간 상호협조(1.87 → 2.94), 공동활동 참여(2.14 → 3.30), 고독감 해소(1.77 → 2.87)의 4개 항목의 이주동기는 그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10년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의 요구 변화가 이주동기의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 해소와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의 요구에 대한 중요도의 감소는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10년에 걸쳐 스웨덴 사회 전반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부분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고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거요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좋은 이웃관계, 주민 간 상호협조, 공동활동 참여, 고독감 해소 등과 같은 항목에서 10년 간 그 중요도가 증가한 것은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적 교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더욱 개인화 되어가는 현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노인용 코하우징이 실리적인 경제적 이점 이외에도, 노후세대에게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이웃 간에 소통이나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이점도 가진다는 점을 숙지한다면, 이 요구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의 10년 간에 걸쳐 이러한 코

하우징의 장점이 주민들에게 잘 인식되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개인화는 더욱 심화되고 동시에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머지않아 수명 100세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후세대가 맞이할 은퇴 후의 빈 등우리 시기도 그 만 큼 연장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60세 은퇴를 가정한다면 40년 정도를 빈 등우리시기로 보내야 하고 이러한 노후시기를 어떻게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영위하는가 하는 문제는 노후세대 당사자는 물론, 자녀를 포함한 가족, 친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의 행복추구라고 한다면 사회적 복지비용을 줄이면서 개인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사회에 통합되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가 노인용 코하우징이며 노인용 코하우징이 추구하는 목표가 현대 또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세대가 사회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스웨덴의 노후세대들이 10년 전에 비하여 최근에 물리적 환경보다는 주민 간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중요시 하고, 이를 찾아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코하우징의 이점과 장점이 10년 전보다 현재에 이르러 일반인들에게 올바르게 전파되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스웨덴 코하우징 협회(Kollektivhus Nu)나 스웨덴 공영주택회사조합인 SABO의 코하우징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지원이 상당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

의 대상이 국내의 사례가 아니고 스웨덴의 표본을 이용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세대 스스로 노인용 코하우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방정부의 협조는 코하우징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참고로 노인용 코하우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국내에서도 나날이 증가하는 노부부 단독가구나 독신 노인가구를 위하여 유용한 주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단지를 개발 할 경우에 스웨덴의 공영주택회사인 SABO에서 노력하였듯이 공영주택개발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택단지의 일부에 노인용 코하우징을 포함시켜 개발하거나, 민영주택시장에서 노인용 코하우징의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를 제안한다. 노후세대 스스로 가능한 한 오래도록 사회 속에 통합되면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대안으로서 코하우징을 개발하는 일은 노후세대의 안녕을 도모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mbrose, I.(1993). *Etablering af seniorbofællesskaber, Erfaringer fra tre projekter i Odense*. København, Denmark: Statens Byggeforskningsinstitut.
- Cho, J.S., Choi, J.S. & Suh, K.S.(2012). Active Participants of Common Activities in Swedish Cohousing and Their Satisfaction. *Abstract book of ENHR Conference 2012*. Lillehammer Norway: 118-119.
- Choi, J. S. & Paulsson, J.(2006).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candinavian Senior Cohousing Projects*. Seoul, Korea: Jipmundang Publishing Co.
- Choi, J. S. & Strid, M.(2011). Why Do People Move into Cohousing Communities in Sweden? -Differences between +40 cohousing and mixed-age cohousing-. *Abstract book of IAPS 2011 International Network Symposium*, Daegu Korea: 152-153.
- Choi, J. S.(2003). Moving Motivation of Senior Cohousing Inhabitants in Scandinavia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Architectural Institute (Planning)*, 19(12), 129-138.
- Choi, J. S.(2004).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12(8), 1189-1216.
- Choi, J.S. & Cho, J.S.(2006).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Mov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ohousing Residents in Scandinavi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117-128.
- Choi, J.S.(2012). Do Motivation to Move in and Life Satisfaction of Residents Aged over 40 Differ by Cohousing Types in Sweden?. *Abstract book of ENHR Conference 2012*. Lillehammer Norway: 119.
- FIC(2007). *Community Directory*. USA: Routledge.
- Glass, A. P.(2009). Aging in a Community of Mutual Support: The Emergence of an Elder Intentional Cohousing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 283-303.
- Hansen, E.B., Dahle, A., Gottschalk, G. & Jensen, S. P. (2000). *Ældre i bofællesskab*. København, Denmark: SBI.
- Housing Study Group(2000), *Cohousing in the World*, Seoul Korea: Kyomunsa Publishing Co.
- Persen, M.(1999). *Seniorbofællesskaber hvorfor og hvordan*, København Denmark: Bolitrvsel i Centrum.
- SBI(1987). *Cohousing communities, collection of examples*, SBI-report 187. Copenhagen, Denmark: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 www.cohousing.org
- www.kollektivhus.nu

접수일 : 2013년 03월 08일

심사일 : 2013년 03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03일